

## '국제푸드&와인축제' 절정, 해외스타 이색3인 화제

관람객 사로잡은 3인 해외스타 '지니 조리, 안젤로 소사, 스티비 김'

(대전=뉴스1) 연제민 기자 입력:2013.10.05 18:47:46



세계 수많은 와인전문가 및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는 '2013푸드&와인페스티벌' 개막식 장면 ©News1

올해 2회째를 맞는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이 세계의 와인과 전통주를 맛볼 기회로 3일 개막해 오는 6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외 유명인사들의 세미나, 쿠킹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와인애호가 및 관람객들의 큰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니 조리'와 '안젤로 소사', '스티비 김' 등 와인 전문가이자 한식을 즐기는 세계스타 이색 3인의 돋보인 활약으로 행사 분위기가 한층 맛의 향연으로 고조되고 있다.

행사 3일째인 5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광장과 대전컨벤션센터를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은 아시아 최초 마스터 오브 와인(MW) '지니 조리'의 세미나와 '비빔밥 버거'로 유명한 세계적 셰프 '안젤로 소사'의 쿠킹쇼를 즐기며, 이들의 모습을 연신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다.

◆지니 조리, '한식과 와인의 매칭' 특별세미나

전 세계 200여명의 MW(마스터오브와인) 중 유일한 아시아인인 지니 조 리(Jeannie Cho Lee, 1968년 서울 출생)가 전하는 '한식과 와인의 매칭' 주제 세미나에는 옴홍철 대전시장, 페터 안토니 베를린와 인트로피 대표를 비롯한 200여명의 참가자가 장소(DCC 201호)를 가득 메워 그녀에 대한 뜨거운 인기를 실감했다.

그녀는 이날 4가지 한식(잡채, 녹두빈대떡, 양념도토리묵, 갈비)을 메뉴로 이에 각각 어울리는 와인을 소개하고 시음하는 기회를 선보였다.

그녀는 "한국인은 맵고 짜고 강한 입맛을 지니고 있고, 설탕보다는 소금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드라이한 와인과 매칭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니 조 리는 "한국의 대전에서 이런 국제적 행사를 갖는데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푸드&와인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식과 와인의 매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세계스타MW(마스터오브와인)'지니 조 리'©News1

#### ◆안젤로 소사, '모던 냉면' 쿠킹쇼

한국의 전통적 음식인 비빔밥을 서양식 햄버거와 접목시킨 '비빔밥 버거'와 한식매니아로 유명한 '안젤로 소사(Angelo So)'는 이날 한빛탑 광장 야외무대에서 화려한 쿠킹쇼를 가져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그는 “한식은 세계인의 입맛을 충족시킬만한 건강식”이라며 뉴욕에 붙고 있는 한식 열풍을 소개했다. 이어 그가 개발한 메뉴인 ‘모던 냉면’을 직접 만드는 시연을 선보였다.

이어 관람객들을 무대로 초청해 ‘냉면’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관객들과 일일이 사진촬영을 하는 등 친절한 무대매너가 이어져 호평과 함께 시선을 집중시켰다. 관람객들은 외국인 셰프가 한국의 냉면을 만드는 이색적인 모습에 재미와 감탄을 연발했다.



쿠�� 쇼에서 자신이 만든 냉면을 관람객들에게 시식을 선보이는 한식메니아 안젤로 소샤 ©News1

#### ◆스티비 김, 대전과 발전적 교류협력 노력

이에앞서 세계 3대와인박람회 중 하나인 이탈리아 '빈이태리(Vinitaly)'의 2013년 전시 비즈니스를 주도한 빈이태리 인터내셔널의 대표 '스티비 김'은 지난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빈이태리, 이탈리아 와인의 진정한 홍보대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와인 애호가들의 신선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스티비 김은 “대전의 행사는 푸드와 와인을 겸한 축제지만, 이탈리아 와인행사는 관계자들의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은 화이트와인”이라고 개인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스티비 김은 이어 4일 오희철 대전시장을 만나 “빈 이태리 행사에 막걸리 등 한국 주류업체의 참여를 주선하고, 대전국제 푸드&와인축제에 이탈리아 와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

다”며 교류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제의했다.



빈이태리 인터내셔널 대표스티비 김이 이탈리아 와인의 진정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News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